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높은 미끄럼틀을 처음 타 본 적 있나요? 아래에서 볼 때는 재미있어 보였는데, 막상 위에 올라가면 갑자기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높아!” 하면서 망설이게 되지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래에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응원해 주시면 용기가 생기기도 해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무서운 거인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힘도 셧어요. 커다란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자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칼이나 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매와 돌을 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어요. 거대한 골리앗은 쓰러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두운 방이 무섭고, 처음 만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도 있고, 혼자 해야 하는 일이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요. 다 같이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용기를 낼래요!”

